

## 강령

우리는  
1. 교육의 자주성 확립과 교육민주화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1. 교육의 주체자로서 학부모의 교육권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1. 자녀들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풍토를 조성한다.  
1. 민주·자유·통일을 지향하는 여러 단체와 연대한다.

## 학부모신문

학부모의 올바른 교육  
참여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바탕이 됩니다.

발행인: 김완자 발행일: 매월 5일 발행처: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14 당일빌딩 301호 전화: 전국 02-675-9068 (천리안 ID HAKBUMO) 서울 02-634-6508 02-634-4359 (FAX: 634-4359) 청주 0431-52-9541 (FAX: 0431-55-0354) 군산 0654-42-5310 부산 051-247-1795 (FAX: 051-247-1795) 전주 0652-231-6242 인천 032-525-8342 광주 062-526-6992 (FAX: 062-529-1552) 마창 0551-45-0341 (FAX: 0551-48-6264) 대구 053-781-3911 동해 0394-33-7784 이리 0653-856-0340 울산 0522-46-0677 여천 0662-84-5116

## 창립 6주년 기념식 행사

## 신·구회원 만남의 자리 마련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창립 6주년 기념 만남의 자리가 지난 9월 28일 종로성당에서 있었다.

오성숙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제 1부와 제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행사에서는 본회의 자문위원인 윤구병(충북대 철학과)

교수가 우리나라의 교육현실과 그 대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실험학교를 중심으로 강연을 하였다.

2부행사에서는 노원구 교육위원으로 선출된 이수호(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서울 지부장이 학교급식실시 공약실천을 위한 학부모의 감시와 학교 안

팍의 고민을 함께 할 것을 당부하며 창립 6주년을 축하하는 축사를 하였다.

이어 본회 김완자 회장은 89년 창립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학부모회가 걸어온 길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윤구병 교수를 비롯하여 정해숙(전국교직

원 노동조합 위원장), 고승종(교육위원), 이정진(참교육 시민모임 사무처장), 김명신(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등이 참석했다.

또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창립초기에 열심히 활동했던 구회원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기도 했다.

(본지 3면 참조)

참교육 학부모회  
동북부지회 창립대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동북부지회 창립대회가 지난 9월 22일 노원구민회관 지하회의실에서 열렸다.

동북부지회는 본회 초창기에 활동을 했었으나 지회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활동이 없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지난 상반기 서울지부의 10여차례의 간담회와 교육문제에 관한 연속강좌를 통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창립하게 되었다.

노원구민회관 지하회의실이 좁게 느껴질 만큼 많은 회원들과 지역인사들이 함께 자리를 빛내 주었다.

이날 창립대회에서 본회 김완자 회장은 축사를 통해 동북부지회의 힘찬 새 출발을 격려했다.

이부영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교육의 양 주체

인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해 노력하고자 당부했으며 창립을 축하해주었다.

윤지희 창립준비 위원장이 전회원의 동의를 받아 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그간의 준비위 활동을 보고하였다. 이어 강영순 교육부장은 하반기 활동계획을 발표하였다.

동북부지회는 10월 초의 PET 부모역할 훈련을 시작으로 9월 28일부터는 매주 목요일 교육문제 연구모임 구성과 아버지 모임 주치의 가족 산행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동북부지회를 위해 일해줄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윤지희(회장), 강연순(교육부), 강은경(조사부), 이정현(편집부), 최정화(총무), 이상숙(홍보), 권명주(문화)



창립 6주년 기념행사—신·구회원이 한자리에 모여 참교육 학부모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주요기사	3면 창립 6주년 기념행사
	4면 만 5세 조기 입학
	5면 자녀 성교육, 박물관
	7면 아이들 글마당

어린이들의 참된 친구  
산하어린이 시리즈

이오덕 · 권정생 · 위기철 · 신경림 · 이현주 · 윤기현 · 지동환 · 강정규 · 이재복 · 임길택

한국 아동문학을 빛낸 작가들  
그들이 바로 <산하어린이> 작가들입니다

전국의 많은 학교와 선생님께서 '학급 문고'와 '독후감 쓰기' 글감으로 자신 있게 추천하는 <산하어린이>는 그 동안 서울 YWCA, 서울 YMCA, 문화체육부, 어린이도서연구회, 국립중앙도서관, 마산 YWCA, 좋은 책 만들기 운동연합회, 창원 YWCA, 군산 YMCA, 어린이 문화 진흥회, 부산 YWCA 등 많은 단체로부터 우수 아동도서로 선정된 권위 있는 책입니다.

## ▶ 생애이야기

- 10 울면서 하는 숙제 이오덕
- 11 차돌이는 한강에서 김민아
- 16 내게는 날 잊는 숙제 오민진
- 17 벼오는 날 잊는 숙제 오민진
- 18 공부하는 재 재하 하노 교실 어린이
- 28 통일은 잘 왔다 동서·동화
- 34 혼자서 쓰는 아이 어린이 철학교육연구소
- 35 날마다 쓰는 아이 어린이 철학교육연구소
- 36 연오령 산정령
- 41 나뭇잎 교실 윤재규
- 51 한민 가정을 밝힌다 나경
- 61 숙달 하나 이야기 하나 일덕
- 72 이오덕 글 이야기 이오덕
- 74 절짜구 우리 역기 배워보세 신장식

## ▶ 산하어린이 들려주는 이야기 달력 교육문제연구소

- 38 38 40 과학을 빛낸 사람들 1·2·3 유한준
- 42 43 재미있는 동물이야기 1·2 오정영
- 62 곤잘리게 물고 놀이인 실험관찰이야기 강기영
- 63 골짜기에 살고 있는 실험관찰이야기 강기영
- 64 악학같이 달려본 실험관찰이야기 강기영
- ▶ 역사이야기
- 2 연오령 세오나 조호성
- 3 4 5 임혁경과 임혁경 1·2·3 강우일
- 31 서울 600년 이야기 강근태
- 50 흥미로운 국보 여행 배부기
- 52 53 꼬마 단군 1·2 강우성
- 58 59 60 소년 독립군 주몽이 1·2·3 강경현
- 68 일짜구 국악이야기 들려보세 강대균

## ▶ 산하어린이 들려주는 이야기 달력 교육문제연구소

- 83 산하 어린이 들려주는 이야기 달력 교육문제연구소
- 85 산하 어린이 들려주는 이야기 달력 교육문제연구소
- ▶ 인문이야기
- 7 전래설화 이야기
- 33 윤동주 정진규
- 49 산하 어린이 들려주는 이야기 달력 교육문제연구소
- 73 목수의 아들 배수 최선주
- ▶ 창작동화
- 1 참나무 선생님의 박상규
- 6 서울로 간 허수아비 윤기현
- 8 여우와 여우가 된 하니 김 동
- 9 허수아비의 눈물 권정생
- 12 해가 뜨지 않는 마을 윤기현
- 13 산하 어린이 들려주는 이야기 달력 교육문제연구소
- 14 비와 비와 박상규

## ▶ 생애이야기

- 15 생애이야기 들려주는 이야기 달력 교육문제연구소
- 19 팔포마을 이상권
- 20 하루나라 허수아비 윤기현
- 21 상계동 아이들 노경실
- 22 따뜻한 사람 박상규
- 23 카타리 종선 장수 이재복 유재복·이현주 외
- 24 도둑 마을 장문식
- 25 최초리와 훈장 윤기현
- 26 동수의 세번째 비밀 윤순하
- 27 아기 장수 조호성
- 28 고독한 가수와 꼬마배우 이상권
- 30 삼마를 아이들 상우
- 32 아이쿠니 호랑이 윤재규
- 37 아리랑은 독재자 윤기현
- 44 친구 없는 못살이 이재복

## ▶ 생애이야기

- 45 다 타고난 재주가 있지요 이재복
- 46 작다고 끝보다 큰코 다쳐요 이재복
- 47 이 고집쟁이 좀 보세요 이재복
- 48 김철지의 매주용 이재복
- 54 팔각할머니와 늑대 지동환
- 55 사장이 된 물방장수 박상규
- 56 집을 나간 소년 한 덕
- 57 허수아비 우리 옆집에 살고 있어요 권정생
- 65 피리 부는 소년 이주홍
- 66 67 서울에 온 어린 형자 1·2 오봉옥
- 68 누를 아이들 임길택
- 70 71 큰소나무 1·2 강정규
- 75 재미 재미 철도재미 강대균
- 76 한민이와 감동이 이오덕·권정생 외
- 77 백두산 산악과 매산이 이야기 동해

## ● 생애이야기 산하어린이 · 81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달력

재미있는 이야기가 달력처럼 펴  
있는 이야기 달력

책을 펼치면 달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 달력으로 새로운 놀이·공부  
달력을 만들어 보세요.

달마다, 학기마다, 학년마다 알찬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교육문제연구소 글 / 최미숙 그림/값 4,000원

도서출판  
산하

서울시 마포구 아현2동 338-10  
TEL 392-7641 FAX 313-2582

## 사 설

### 학교운영위원회가 올 2학기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다.

창립 이후부터 본회는 공청회, 성명서, 교육당국에 대한 건의서 등을 통해 학부모의 민주적 학교참여를 보장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해온 만큼, 드디어 실시되기 시작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많은 관심과 기대를 안고 주시하고 있다. 사실 학부모는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부족한 교육재정을 메꿔주는 금고역할을 맡아왔으면서도 학교운영에의 참여는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 따라서 학교는 후원금이나 찬조금을 낼 재력있는 부유층 학부모들만이 치맛바람을 날리며 당당히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써 대다수 학부모들에게는 무관심과 외면의 대상이었다. 학교는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산 교육장이 아니라, 비민주적 요소가 난무하는 권위주의의 온상으로 자리잡아 왔다. 그런데 이제 교육주체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첫 걸음마를 내딛으며 몇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물론 이번 실시되는 학교운영위원안은 본회가 주장해온 학교운영위원과 비취볼 때, 시작부터 여러가지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장이 전권을 행사하는 우리의 권위주의적 교육풍토 속에서 학교운영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의결기구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기구로 기능한다든지, 사립학교에는 운영위 설치를 권장하기만 할 뿐 의무적 설치를 규정하지 않은 점, 운영위가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심의하지 않고 제한된 사안에 한해 심의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5.31 교육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학교운영위 실시에 위협을 느낀 교장단들의 끊임없는 반발과 항의로 교육개혁위원회의 원래 안보다 한층 후퇴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아쉬운 점은 본회가 지난 7월 공청회에서 강력히 주장했던 학부모회, 교사회, 학생회의 상설기구화가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속한 단위 학급에서 담임교사와 만나 자녀지도의 문제, 아이의 학교생활 및 인성 학습지도 문제 등을 포함, 학교운영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원하고 있다. 학급학부모회를 통해 학년대표, 학교대표를 선출하여 학부모회를 구성하고 학부모들의 의사들이 상시적으로 학교운영위로 수렴되지 않는다면, 학부모는 학년초에 단 한번 학교운영위 대표를 선출하는 투표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다시 학교운영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력있는 학부모와 비민주적으로 선출된 임원들에게 요식행위에 불과한 예·결산 심의 절차만을 맡겼던 기존 육성회와 학교운영위를 비슷한 것이라고 치부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학부모가 대비하지 못한 사이에 상당수 시범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대변할 만한 대표를 선출하지 못하고 찬조금 징수의 업무에만 익숙해져 있기 쉬운 기존 육성회, 어머니회 임원들을 학교운영위 대표로 선출했다고 한다. 뒤늦게 학교로 공문을 보내 대표선출 시일에 쫓기도록 만든 교육당국에 1차적 책임이 있지만, 학교운영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주체적으로 나서지 못한 학부모들의 자세에도 문제는 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는 시범 실시되는 동안 더 민주적인 형태로 개선 발전되어야 하며, 이는 전적으로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을 것이다.

### 정부 교육재정 5%확보 방안 발표

정부는 8월 30일 교육개혁 추진위원회를 열어 '교육재정 98년 GNP 5% 수준 확보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96년에 17조 6천억원(4.53%) 97년에 20조 7천억원(4.8%) 98년 24조원(5.00%) 등 연차적으로 62조 3천억원을 조성하게 된다.

확보방안은 교육세의 경우 내년 7월부터 담배, 유류에 교육세를 새로 부과

하고 경주마권에 붙는 기존의 교육세 비율을 인상해 재원을 확보하며 지자체 부담금은 새로운 지방세원의 확보나 다른 예산의 전용을 통해 부담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예산편성에 교육예산 증가율을 과거 12.5%에서 15%로 높여 총 소요예산의 30%인 정부예산을 감당할 방침이다.

### 홍기훈의원 학교급식 영양기준 미달 밝혀

국회 교육위 소속 홍기훈 의원(민주)은 9월 12일, 교육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하여 현재의 학교급식이 영양기준에서 미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전국 3,314개의 급식학교 중 397개교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분의 급식일지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의 한 끼 영양기준에 미달하는 날이 월 평균 10.6일이며,

특히 칼슘, 철 등 1가지 이상 특정 영양소가 미달되는 날도 5일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로는 경남이 10일 이상 영양기준 미달 학교가 90.9%, 평균 미달일 15.3일로 가장 부실했고 그 다음은 부산, 서울, 제주, 광주, 인천 순으로 나타났다.

### 인천 40% 선지원 60% 후추첨 확정

인천은 인문계고교를 지원하는 올해 중학교 3학년학생 중 40%는 자신이 희망하는 2개교의 고등학교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60%는 종전처럼 지리정보시스템(통학거리를 고려한 근거리 배정)에 따라 추첨,배정한다. 학교별 지원자가 40%를 초과할 경우 지원고별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인천시 교육청은 특정학교의 편중현상을 막기 위해 전체학생의 40%만을 지원, 나머지 60%는 추첨형식으로 배정한다. 미봉책이긴 하지만 현실성이 있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내년이후 입시요강이 바뀐다면 또다시 변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 학부모 만평

이숙자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운영기금마련을 위한

일시 :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 10시

장소 : 서소문호프(774-9998)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하차  
대한항공빌딩 방면으로 나오세요

주최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일일호프





# 참교육 학부모회 창립 6주년 기념 대회

## 어제와 오늘이 함께한 자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가 창립한 지 6주년을 맞이하였다. 1987년 사회 각 계각층에서 솟아난 민주시민의식에 힘입어 89년 마산을 중심으로 학부모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해 9월 22일 한국교육 역사 이래 최초의 자주적 학부모 조직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가 향원 교회에서 결성되었다. 학부모회의 결성은 교육에 있어 후원자, 보조자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학부모의 교육권을 주장하였는데 큰 의의를 가진다. 본회는 창립 이래 학부모 교육권찾기 운동을 중심으로 전개하면서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 나아가서는 학부모 의견과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참교육 학부모회는 6주년 기념행사를 지난 28일 종로성당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제 1부순서로 윤구병 교수의 강연이 있었으며,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부는 신규 회원 간담회가 있었다. 본회의 6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온 전교조 선생님들과 교육운동단체 임원들과 더불어 학부모회 회원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가진 기념행사는 먼저 우리나라의 교육현실과 그 대안이라는 주제의 강연으로 시작되었다.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병들어가는 아이들이 울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윤구병 교수는 그 대안으로 실험학교를 소개하였다.

강연에 이어 곧바로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기념행사는 김완자 회장의 인사, 창립 6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내빈들에 대한 소개와 축사로 이어졌다. 특히 축사에서 이수호 전교조 부위원장은 올바른 교육자치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 학부모회 걸어온 길

이어 김완자 회장이 학부모회의 창립에서 오늘까지를 소개하였다. 학부모회가 지난 6년동안 해 온 일들을 소개해 보면,

1989년 3월 마산에서 학부모회가 조직되면서 9월에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가 창립했다.

1990년 2월 고교입시부활 반대, 3월 돈봉투 없애기 운동,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자주적인 학생활동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대회, 월반, 유급제에 대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였다.

1991년 2월 제 1기 예비 학부모 교실을 개최하였다. 5월 1일 학부모신문이 창간되었으며 어린이 한마당(어린이날 행사), 학부모의 교육참여에 대한 공청회, 교과전담제 실시 국회 청원을 하였다.

1992년 1월 어린이 역사기행을 개최하였고, 3월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침서를 발행하였다. 6월에는 국민학생 교복입기 반대운동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교육부의 잡부금 근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였다.

1993년 4월 우리쌀 지키기 운동, 5월 엄마도 선생님 공개수업을, 10월에는 제 1기 교육모니터 교실을 개최하였다.

1994년 중학생 예비학부모 교실과 교복물려 입히기 운동을 시작하였다.

1995년 입시부활 저지를 위한 운동, 국민학교 급식실시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밖에 지방자치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교육위원으로 출마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다른 교육단체들과의 지속적인 연대를 통하여 교육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압력단체로서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 신·구회원의 만남

6주년 행사에는 회원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소개를 하고, 열심히 활동했던 선배 회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당부의 말들을 가슴에 새기는 모습이 정겨웠다. 또 참석자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스스로 교육에 관심을 갖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교육에 대한 변화 가능성에 희망을 갖으며 학부모회의 무궁한 발전에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학부모회의 6주년을 지방회원들과 함께 나눌 수 없었던 점과 아버지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웠지만 서울지역 학부모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여 학부모회의 앞날이 밝아 보였다.



### 윤구병 교수와 함께

윤구병 교수의 '우리나라의 교육현실과 그 대안'이란 주제의 강연을 정리해 본다.

만5세 조기입학이 5.31 교육개혁안에 발표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학부모들의 조기교육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기교육은 아이들의 이해능력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반복하여 들려줌으로써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 부모들의 지나친 조기교육이 아이들의 뇌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신체적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인구의 80%가 도시에 거주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갖추지 못한 채 이른위주의 공간만을 형성함으로써 아이들의 생명에너지를 위축시키고 있다.

아이들의 인지능력은 성장과정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 것일까?

아이들의 두뇌는 신체의 일부이다. 두뇌가 축적할 수 있는 정보는 아이들의 성장단계에 따라 그 용량이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의미를 모르는 정보는 곧 잊혀져 버린다. 자연스럽게 왔다가 흔적만 남기고 곧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아이들이 구체적인 사물들을 온몸으로 느끼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받아들일 때 논리적인 사고력이 생긴다. 아이들에게는 어떤 정보가 뇌에 들어오든, 내부에서 생겨나든 그것을 다루는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

근대교육이 앞선 유럽에서는 취학전 아이들에게 셈이나 언어를 가르치는 것

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초등학교교육은 9년제로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이 교육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아이들에게 획일적으로 책상, 걸상을 두고 같은 나이의 어린이들을 모아놓은 교실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가에 의문을 갖자. 예부터 교육이란 자연과 인간이 한데 어울려 생활과 접목되면서 형성되어 왔다. 산과 들, 바다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고 거기서 나는 여러가지 재료로 스스로 만들고 싶은 물건을 만든다. 그럼으로써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표현능력, 창조력이 발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어떻게 놀게 할 것인가?

도시의 경우 아이들이 놀만한 놀이터나 자연이 충분치 않다. 이때 동아리를 만들어보자. 주말에 부모들이 돌아가며 아이들을 데리고 근교에 나가는 것, 바로 참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윤구병 교수는 변산에서 실험학교를 준비하고 있다. 아이들이 스스로 못을 두드려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대장간이 있고, 흙을 빚을 수 있는 도자기실이 있고, 자기가 쓸 물건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목공실이 있고, 바닷가에서 굴, 게, 조개 등을 얻을 수 있는 곳, 공동체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김은주 기자)

## 불꽃같은 운동에서 물방울같은 운동으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창립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교조가 건설된 그해 9월 22일에 결성된 참교육 학부모회는 우리의 교육운동사에서 자주적인 학부모운동을 일으키고 발전시

킨 최초의 조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길을 만들면서 가는 길에는 좋은 사람도 많지만 그 길을 가로막는 사람도 많고, 어려움도 많기 마련입니다.

험난했던 지난 6년의 세월 동안 우리 전교조도, 참교육 학부모회도, 촛불처럼 자신을 송두리째 태워 버려야 하는 헌신적이고 눈물겨운 투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한 자루의 촛불이라도 더 밝혀야 했던 지난 시기를 불꽃의 시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불꽃이 너무 뜨거워 저 들판을 다 태우기도 전에 때론 우리들이 안으로 까맣게 타버리는 고통을 부동겨 안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참교육 운동에서 떨어져 잠시 쉬기도 하고 혹은 많이 멀어지기도 했으며, 아주 먼 곳으

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불꽃의 시대에 촛불처럼 뜨겁게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물방울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흘러 내리는 물방울이 모여 마침내 바다를 이루듯이, 우리들의 운동은 더욱 대중속으로, 생활속으로, 지역속으로 파고 들어, 거대한 대중의 바다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서 학부모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라든지, 삶의 공간이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주인이 바로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 바로 학부모라는 사실이, 향후 교육운동에서 학부모운동의 지위와 역할을 더 한층 높여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창립 6주년을 맞는 참교육 학부모회가 학교로, 지역으로, 생활속으로 물

방울처럼 스며들어, 명실상부한 자주적인 학부모 대중조직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지역마다 참교육 학부모회 지회를 만들고, 학교마다 학부모회의 분회조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불꽃같은 운동의 시대가 남긴 비옥한 재가 오늘 우리들이 전문성과 지역성과 대중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교육운동, 학부모 운동을 시작하게 하는 넉넉한 재산이요,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임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그 힘찬 전진의 대열에 우리 전교조는 처음처럼 아침처럼 신선한 참교육의 한 뜻으로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정현태(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지부 기획연사부장)



◆ 5.31 교육 개혁안 — ④

# 국민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방안

## -만5세 조기입학 허용에 관하여-

국민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방안이 96년 시행을 앞두고 각계에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시한 만5세 조기입학의 내용과 문제점,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 ▲ 국민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의 의미

국민학교 입학연령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는 입학적령기를 만6세를 유지하면서 지적, 정서적 발달이 조숙한 어린이의 경우 입학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의미로 5세아에게 제반조건이 갖추어지면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국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는 조치이다.

### ▲ 필요성과 당위성

개성과 적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조건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은 '수월성의 파급효과'로 일반아동에게도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당위론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다양한 교육환경이 개선된다면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 국민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실행 방안

기본입장은 대다수 5세아에게 적합한 교육은 유치원 교육이다. 단 국민학교입학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극소수의 5세아동으로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신중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입학할 수 있다.

실행방안으로 수월성의 기준과 방법이 적용되고 지능 뿐만 아니라 독립심, 주의집중능력, 지구력, 과제집착력, 책임감

등 성격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적응가능성을 평가한다.

### 1) 입학허가위원회(가칭)의 구성·운영

지역 교육청 수준의 입학위원회 (교육장, 유아 및 초등장학자, 학생수용계획 실무자, 교육학자 등을 포함 10인 이내 구성)와 학교수준의 입학허가위원회 (교장, 초등학교 교사, 지역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 발달 전문가 포함 10인 이내 구성)가 구성되어 입학허용 규모, 지침 설정, 신청서 접수 및 취학여부를 확인 받을 수 있는 학교지정, 입학허가 위원들의 교육 또는 연수, 학교수준의 입학허가 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맡아 입학허가 여부를 결정짓는다. 입학결정여부에 관한 모든자료는 교육청 수준의 위원회에 제출하여 최종 입학허가 승인을 받도록 한다.

농·어촌의 경우 몇개의 학교가 공동으로 입학허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2) 입학허용 방법

5세아의 생년월일 순 또는 수월성 평가안으로 1회의 면접을 통한다. 이때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추천서나 학부모의 신청서를 참고하고 1~2회의 활동관찰을 통해 그 결과를 참조하여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월성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교육구상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지난 5.31 교육개혁안의 종합생활기록부 중 봉사활동이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

기기 보다는 입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점수 따기 수단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이기심을 유발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5세 입학 역시 이 선을 넘지않으리라 본다.

따라서 5세입학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5세 입학 어린이에 대한 학부모의 경쟁적 이기심 유발을 막아야 한다. 학부모의 조기교육에 대한 집착은 출판사, 학원, 유치원의 경쟁으로 5세 조기입학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러한 조기교육은 어린이의 지적능력 향상에는 기여하지만 인성발달과 사회성에 큰 지장을 가져오게 된다.

둘째, 열악한 교육환경개선과 유치원의 공교육화, 탁아소 설립

초등교육의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과연 5세 아동이 유치원의 교육을 마다하고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을 지 의문이다.

2부제 수업과 과밀학급으로 개개인의 발달과정과 학습능력을 관찰하고 검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교사에게 자율권과 업무량이 적정한가도 살펴볼아야 할 것이다. 교사의 처우개선이 우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되고 있어 만5세아동의 조기입학이 얼마나 성급한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유치원의 공교육화로 병설 유치원을 늘리고, 시설을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소 설립을 해결해야 한다.

셋째, 5세입학을 전제로하는 교육과정은 어린이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갖게해야 한다.

우선 배움의 즐거움은 빨리



많이 배우는 것이 만능이 아니라 교사의 가르침에 하나하나 깨우쳐 나가는 즐거움으로 여윌게 학교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보여지는 것이다. 주 5일 수업은 교사가 방학과 함께 다양한 교과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네째, 재정확보로 장애아동과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에 대한 배려와 체계적인 교육투자

장애아나 학습장애아동에 대한 학교의 배려는 아직도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수교육을 지도할 교사에 대한 처우와 교육도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런 장애 아동과 그 아동의 학부모, 그렇지 않은 아동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과 학교의 제도, 배려 등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육관계자의 '수월성교육'만을 강조하는 안이한 태도라 할 수 있다.

다섯째, 학부모의 교사에 대

한 신뢰와 교사의 조기입학 아동에 대한 공정성

5세아동의 선별방법에 있어 생일순과 수월성평가안의 어느 경우도 학부모의 건강한 의식이 중요하다. 수월성평가 기준의 경우 유치원교사의 추천서가 첨부되는데 이때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인 '촌지'가 살아날 우려가 있고, 유치원의 조기입학원생에 대한 실적위주평가도 교사의 공정성에 타격을 줄 것이다.

학부모는 교사에 대한 신뢰를 갖고,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철저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5세 조기입학에 대한 문제가 유치원과 학원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사회가 이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면 피해자는 자라는 아이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박인옥 기자〉

### 인터뷰

## 서울 동북부지회 윤지희 지회장을 찾아



지난9월 60여명의 회원으로 서울 동북부 지회가 탄생했다. 창립과 함께 지회장을 맡게 된 윤지희씨는 1년의 임기동안 거창한 계획과 목표보다 학부모들이 겪는 현실의 작은 문제부터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말했다.

“학교나 학원의 획일적 교육

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려 합니다. 어린이 연극교실, 엄마와 함께 그림그리기, 독서지도, 가족등산모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참교육의 모습을 찾고 실천할 생각입니다.”

특히 동북부지회는 윤지희씨를 비롯해 어린이 독서지도, 동화공부를 한 회원들이 많아 이 분야의 활동은 완벽한 준비가 된 셈이라고 한다.

지회 창립을 준비하며 어려웠던 점을 묻자, “가정에만 묻혀있던 주부들이어서인지 대부분 회원들이 사회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좋은 강좌가 있으면 참석해 듣

는 정도에서 만족하고 말죠.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무척 어려워 합니다. 무엇보다 자원봉사에 대한 의식부족이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자원봉사에서 얻는게 무척 많은데도, 시간을 투자한 만큼 경제적 대가가 없다는 생각을 하니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기가 어려웠어요.”라며 자원봉사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강조했다.

윤지희씨는 또 동북부지회는 물론 학부모회 전체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많은 회원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많은 학부모들이 참교육 학부모회에서 활동하면 아이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또 참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이념을 따르다 보면 현재의 입시위주 교육이나 경쟁에서 낙오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무조건 이것을 나쁘다고만 해서도 안되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대안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학부모회 발전 저해요인을 얘기하며 그 대안 마련을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넣고 싶다고 말했다.

“사회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주체의식을 가져야 아이를 바르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로, 또 학부모로 홀로 바로서기는 힘들어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주위사람을 찾아 학부모회에 가입했죠. 큰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니 일찌감치 정신무장을 한 셈이에요.”

5년전 자신이 처음 학부모회를 두드릴 때를 얘기하며 뜻을 같이한 사람으로부터 끊임없이 자극을 받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며 운동회, 소풍때마다 선생님의 식사비, 목욕비 등의 명목으로 엄마들이 돈을 걷는 일에 부담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거부하기도, 협조하기도 힘든 경우죠. 이런 작은 문제점들부터 학부모회에서 함께 의논하고 해결해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작하는 교육상담원 강좌에 윤지희씨는 관심이 많다고 한다.

초등학교 3학년, 5살 두딸을 둔 엄마로 큰일을 맡게 된 윤지희씨는 요즘은 집안일을 하면서도 늘 학부모회 생각 뿐이라고 한다. 이런 일꾼을 둔 동북부지회의 발전이 눈앞에 보인다.

〈송주비 기자〉



## ◆ 가족이 함께 하는 성 이야기(3)

## 아들과 딸 가해자도 피해자도 되지 않게



윤 양 현(여성학자)

## 2) 자기몸에 대한 주인 되기

하루 하루를 살아 갈 수록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로 자존감을 들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존감은 스스로 기억할 수 없는 어린 시절에서부터 싹트는 자기 몸에 대한 확신에서 출발합니다. 세상에 태어나 수 많은 사물들을 인식하는 것은 사물에 대한 명칭을 익히면서 가능해지지요. 자기 몸에 대한 확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가르칠 때면 엄마들은 눈, 코, 입을 가리키면서 눈, 코, 입을 열심히 따라하도록 하지요. 그러나 어느 엄마도 성기의 명칭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배워 왔으니까요. 명칭이 없는 몸은 내 몸이 아닙니다. 여자의 성기는 그래서 여자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에게만 강요해 온 순결 이데올로기가 결합한 때문이지요. 결국 여자의 성기는 이 다음에 한 남자에게 바쳐야 할 제물 줌으로서 자신에게조차도 보이지 않게 꼭꼭 숨겨 두고 있어야만 할 비밀스런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자의 입장은 아랑곳 없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자의 일방적 태도를 사랑으로 착각하고 자기 몸의 주인되기를 포기하는 여자들이 그래서 많이 존재했던 것

입니다. 아직도 얼굴만 갖고 다니는 딸들로 키우실 걱정인지요?

세살짜리에게 엄마 아빠를 그려보라고 하면 안경부터 파마 머리까지 잘 그려냅니다. 그리고 엄마에겐 치마를 아빠에겐 바지를 입히지요. 이 때 엄마 아빠의 보이지 않는 몸의 차이를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정확한 명칭을 찾아주고 기능을 설명해 줍니다. 자기 몸에 대한 확신은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후 자기 몸에 대한 주인의식은 자기 몸에 대한 책임감을 인식하면서 성장을 시작합니다. 네살 쯤 되면 뽕바닥에 주저 앉지 말아야 하는 이유, 아무리 덥더라도 또는 의사놀이 하더라도 절대 팬티와 바지는 벗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 기본은 보건차원입니다.

“너 스스로 친구들을 만나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엄마가 너의 몸을 보호해 줄 수가 없어. 많은 것들을 만지게 되는 손, 그리고 뽕바닥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뽕바닥에 앉지 말고 또 팬티와 바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벗지 말라는 거야.”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균으로부터) 보호해야만 한다는 책임 의식, 이건 바로 자기 몸에 대한 자존감을 넘어 주인의식을 갖추게 하는 기본 예식입니다.

어떤 교육 내용도 아들과 딸을 분리해야 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주인의식이 분명한 아들은 절대 가해자가 되지 않습니다. 주인의식이 확고한 딸은 절대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함께 하는 성 이야기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 3) 자기 성에 금지 갖기
- 4) 자기 마음을 표현 할 권리 갖기
- 5) 남녀의 평등한 역할 익히기

## 초등학교 사춘기 성교육 과정

- 1) 자기 몸에 금지 갖기
- 2) 2차성징
- 3) 이성교제에 대한 남녀차이
- 4) 사랑 개념, 결혼 의미
- 5) 정자와 난자는 어떻게 만나요?
- 6) 자위행위
- 7) 자신을 파괴하는 사람들

어디까지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 ◆ 박물관 순례-(8) 한국자수 박물관

## 여인들의 손끝에서 피어난 조형예술 - 꿈과 정성이 배인 수공예

서울의 논현동 사거리 강남 우체국 건너편 골목쪽에 자수 박물관이 있다. 이 박물관을 우리나라의 개인 박물관으로 최초이며, 문화재 전문위원인 허동화씨가 1960년부터 모은 자수관련 유물 3천여점을 수집한 것으로 이루어졌다.

자수는 어느 나라에서나 여인들이 정성을 다해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조형예술이다. 전시된 유물을 살펴보면 자수의 유래와 변천사를 알아본다.

동양자수는 페시아에서 시작되어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으로 전래 되었고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이전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국시대, 서기 1430년쯤 백제에서 일본으로 전해졌다. 통일 신라 시대에는 불교문화에 관한 자수가 성행했다. 일반 생활에서도 옷을 장식하는 자수 병풍, 부채 등에 사용되었으며 귀족들의 생활용품에 사치품처럼 사용되어 나중에는 이런 것을 막는 법까지 제정되었다. 이 시대에는 성분이나 직급에 따라 자수의 쓰임새가 다르게 표현되었는데 이런 것은 조선시대에까지 계속되었다. 특히 통일 신라시대에는 공방에서 짠 비단을 당나라에 수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염료제조와 염색을 하는 기구를 따로 두었다. 고려 시대에는 귀족층을 중심으로

복식자수가 사치스럽게 성행하였고, 궁중의 행사와 여러 기구에 자수가 등장하였다. 또한 불교자수도 같이 발달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자수의 쓰임새에 따라 불교자수, 감상용자수, 생활자수로 나뉜다. 불교자수를 보면 이름난 승려에겐 수놓은 가사가 수십 벌씩 있었는 데, 신앙심이 강한 여성 신도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불교자수의 내용으로는 승려들의 가사 벌기, 다라니주머니, 탁의등이 있다.

복식자수는 옷과 장신구에 장식한 문양을 말한다. 그것은 옷에 직접 수를 놓는 것이나 자수 장식품을 부착시키는 것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예는 왕의 대례복과 왕족일가의 예복들이며 후자는 계급을 나타내는 흉배와 복식장식물들이다. 감상용자수는 병풍이 있다. 병풍은 쓰이는 행사에 따라 걸맞는 자수가 놓여졌다. 대부분 화조무늬였지만 십장생과 수복류도 있었다. 화조는 모란, 연꽃, 매화, 국화등이고 새는 한쌍으로 원앙, 꿩, 봉황, 오리등이 수놓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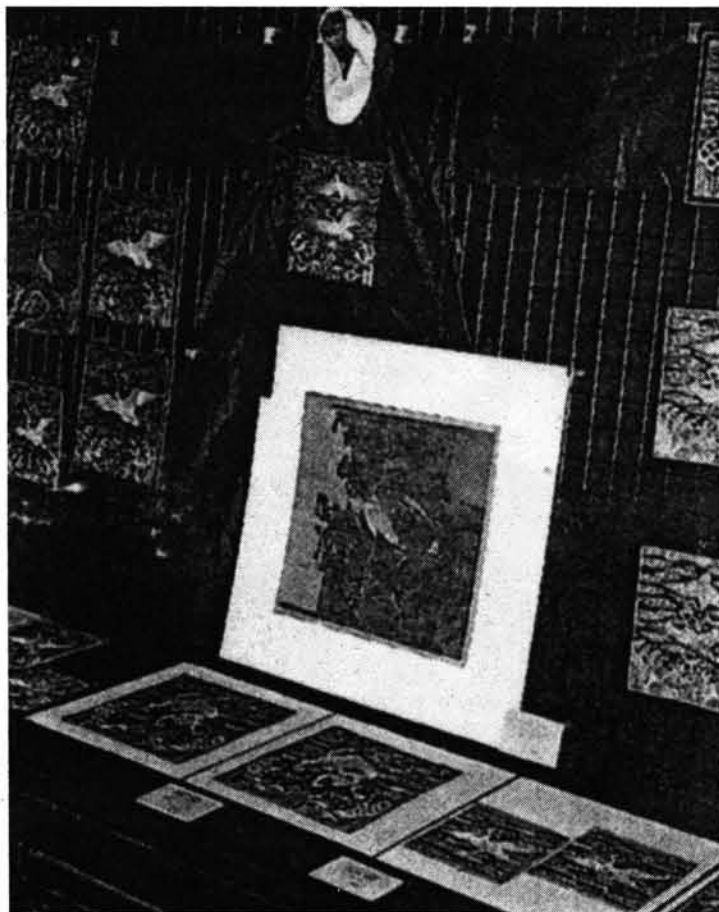
생활자수는 일상생활에 쓰이는 용품에 장식된 자수를 말한다. 베갯모, 버선보집, 삼지, 수저집, 안경집, 방석, 밥상보 셀 수 없을 만치 종류가 다양하다.

이런 것들에는 꽃무늬, 장생무늬, 길상무늬등이 수놓여 졌으나 지역에 따라 무늬나 색이 다양했다. 바탕천은 흰색이나 유색의 비단이 많이 쓰였고, 실은 끈사나 반끈사가 주로 쓰였다. 수를 놓는 기법으로는 매듭수, 사슬수, 자연수, 그늘관수, 끈사수, 술수등이 쓰였는데, 어떤 수법을 쓰느냐에 따라 아름다움의 차이가 있었다.

오늘 날에는 손으로 놓는 자수보다 기계로 놓는 자수가 성행하고 있다. 대량생산과 시간 절약이란 면에서 점점 더 기계자수 쪽으로 기울고 있으나, 손수에서 볼 수 있는 섬세하고 그윽함은 찾기가 어렵다. 특히 과거 우리 조상들의 손과 실로 만든 수공예에서 볼 수 있는 예술성은 없다. 그러나 염색 기법이 발달하여 색이 주는 다양한 표현은 가능해졌다. 기계수가 대부분인 지금, 이 자수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조상들의 정성과 땀이 배인 자수품들은 교육적인 가치가 크다고 본다.

한국자수박물관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빼고는 늘 개관되어 있으며, 오전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이다.

(김해순 기자)



10월중에 참교육 학부모회 사무실을 이전 합니다.

이전할 곳은 당산역 맞은 편  
2001 아울렛 뒷편 건물입니다.





# 학부모 한마당

독자와 함께 하는 '학부모 한마당'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직접 찍은 교육사진이나 4매의 원고를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보내 주십시오.  
 보내실곳=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14 당일빌딩 301호 학부모신문  
 독자한마당 담당자 우편번호 150-046  
 전화=02-634-6508, 675-9068 FAX=02-634-4359  
 전리안 ID HAKBUMO  
 채택 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학교장 전입 내신제

우리의 농어촌 교육은 일년에 450여 개의 학교가 없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더 이상 농촌에서 농사만을 지어 아이를 교육시키고, 잘 살수 있는 세상은 아닌 것 같다.

도시와 농촌의 사회적, 경제적 격차로 이농은 가속화되어 학생들의 대도시 전출은 늘어만 가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교사들의 근무여건이 가장 열악하기로 소문난 전남지역에서는 학교장 내신 100%로 교원 인사제도를 시행하려고 하여 농어촌 지역의 교사, 학부모의 반발을 크게 사고 있다.

'학교장 내신제'라는 것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유공실적이 있는 자를 유능한 교사로 불러오는 인사제도를 말한다.

학교 경영의 자율성 보장과 우수교사 확보와 그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제도라고 하나, 단순히 근무성적이 좋은자와 유공실적이 있는자가 유능한 교사로 선택된다면 학교장의 독선적인 횡포가 뒤따를 것이다.

학부모들은 일류학교를 많이 진학시킨 교사를 유능한 교사로 선호하게 될 것이며, 나이는 교사, 여교사, 또 바른

소리를 하는 교사는 더이상 교단에 설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지난해 전남교육청은 이미 고교교사 50%를 학교장 내신제를 시행하여 상당수의 교사들이 도시로 가기위해, 학교장들에게 금품을 건네주기도 하고, 혈연 지연 학연 등을 내세워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고 한다.

도시 벽지에서 가족과 떨어져 아이들을 가르치며 근무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교사에게 금품이나 줄대기를 부추겨 도시로 가게 한다면 누가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것인가?

젊고 우수한 교사는 도시로 가고, 금품살포나 줄대기에 실패한 교사나 도시로부터 쫓겨난 교사들만이 농어촌 지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농촌을 살리고 교육을 살리는 일이 이런 제도란 말인가?

황폐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농촌 아이들에게 더 유능하고 훌륭한 교사가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어려우면 다른 시, 도와 같이 순환교사 인사이동제도가 정착되어야 하고, 학교장 전입 내신제는 철회되어야 한다.

조경란(여천지회)

## 성의없는 운동회

가을 운동회가 무척 기대됐다. 학생수가 많아 올해부터 이틀로 나누어 한다는 거였다. 이틀씩 참여해야 하니 좀 바쁠 것 같기는 해도 그만큼 기대도 컸다. 삼천여명의 아이들이 북적대는 작년까지의 운동회는 그저 교육과정에 끼워맞추는데 그치는 형식적인 거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며칠 전부터 사들였던 응원도구들 때문에 이번에는 뭐가 좀 달라지려나 은근히 기대가 됐다.

하지만 지난해와 같은 아쉬움은 아니었으나 맥이 빠지는 마찬가지였다.

교문을 들어서니 만국기만 펄럭이는 운동장에는 작년에 썼던 것과 똑같은 개선문이 초라하게 서 있었다. 운동장 바닥에는 하얀 금 하나 그려지지 않았다. 하얀 체육복을 입은 아이들은 줄도 그어지지 않은 100미터 코스에서 선생님의 손신호에 맞춰 8명씩 뒤엉켜 출발점의 아이들이 반도 채 가기전에 다시 출발했다. 달리는 아이들도 힘이 하나도 없었다. 일등도 꼴찌도 최선을 다해 달리는 아이들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다.

마스게임도 기마전도 또 꼭두각시 춤도 도대체 신명이 느껴지지 않았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그랬다. 아이들을 인솔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선생님들의 열성어린 모습이 없었다.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신명이 없었다.

다만 딱 한 군데 학년별로 줄을 맞추어 응원하는 모습만은 그런대로 생기가 돌았다.

대형 양푼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소리에 맞추어 반에서 뽑힌 아이들이 까만색 혹은 빨간색의 티셔츠에 줄바지를 입고 신나게 몸을 흔들어대고 있었다. 학년 별로 앉아 앞에서 춤을 추는 아이들의 동작에 맞추어 깡통, 깃발, 고무장갑을 들거나 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를 했다.

아이들이 가진 응원도구는 음료수 깡통에 작은 돈을 넣어 파란박지 빨간박지로 붙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문구점에서 산 것들이다. 헌장갑 300원, 깃발 1200원, 코팅한 카드색선용 색상지 2500원, 빨강 노랑수술 1000원, 붉은 티셔츠 4000원 등

귀찮아지게 울려나오는 응원가들은 요즘 혹은 몇달전에 유행했던 가요들 일색이었다.

'이브의 경고' '잘못된 만남' '일과 이분의 일' 등등... 가끔 '우리들은 새싹들이다' '숲속을 걸어요' '아기공룡 둘리'같은 아이들 노래도 나오기는 했지만 제목도 다 기억할 수 없는 가요들에 맞추어 앞에서 춤을 추는 아이들은 텔레비전에서 보는 운동경기의 치어질 같았다. 청백계주와 줄다리를 할 때의 함성을 제외하고는 운동회를 위해 응원을 하는 건지 응원을 위해 운동회를 하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아이들의 운동회가 끝나면 늘 그랬지만 기대했던 올 운동회도 여전히 섭섭하고 조금은 화도 났다.

아이들이 좀더 신명나게 달릴 수 있도록 트랙에다 하얀 금이라도 그어주면 안되나. 장애물 경기도 좀 다양하게 재료를 준비해 주면 아이들이 얼마나 흥미있어 할까. 개선문도 좀 환상적으로 꾸며 아이들에게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어주면 안되나. 문방구에서 혹은 학부모들에게만 떠맡기지 말고 선생님들이 미술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응원도구를 함께 만들면 안되나 하는 생각 등.

다른 학교도 그럴까 우리 애들 학교만 그런가. 처음부터 끝까지 도무지 성의라곤 찾아볼 수 없는 운동회였다.

김민자(안양시 석수2동)

## 자연학교 후속모임

9월 23일, 오후 3시부터 보라매 공원의 큰나무동 2층에서 강화도 자연학교의 후속모임이 열렸다. 강화도의 자연(갯벌과 들꽃)과 역사를 주제로 했던 자연학교가 대과없이 무난히 마무리된 지 한달여. 비록 2박 3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이 많이 들었던지 사무실로 연락처를 묻는 전화가 많았다. 그래서 자연학교에 참여했던 어린이와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간의 만남을 주선하게 된 것이다.

마리산 등산을 방해했던 그날처럼 비가 추적거리는 날씨 탓인지, 예상보다 훨씬 적은 40여명 정도가 모였다.

먼저 자연학교(8월 17일 ~ 19일)에서의 추억이 담백 담긴 비디오를 감상하고 이번 탐사에서는 둘러보지 못했던 강화도 곳곳의 유적지를 한만호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다. 이어 참교육 학부모회의 간단한 소개와 문화사업 안내가 있었고 참석한 학부모간의 간담회로 진행되었다.

오늘의 모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들로부터 몇번씩 낱자 다짐을 받았다는 아버지. 자연학교에 다녀와서 어린이가 좀더 의젓해졌다는 어머니. 어떤 형을 만나기 위해 오늘 모임에 나왔다는 어린이. 도시에서 자란 아버지가 오히려 무색하게 자연의 온갖 들꽃을 척척 이를 찾아내는 아들이 대견해 보였다는 아버지. 갯벌 탐사가 즐거웠고, 보릿대로 여치집 만들기, 새끼꼬는 것을 처음 배웠다는 어린이. 그래서 남은 보릿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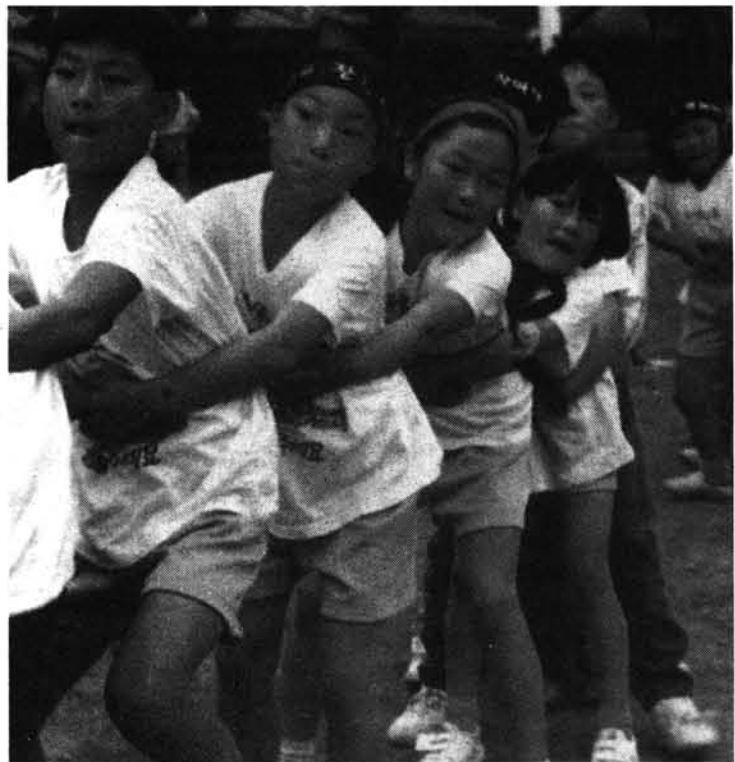
를 집에 가져가 어머니랑 복습도 하고 '만들기' 과제로 제출했다는 이야기 등 어느덧, 마음들이 강화도 자연학교로 옮겨가 있었다. 또한 극성스러웠던 파리와, 모기떼. 음식이 입에 안맞은 어린이는 군것질을 했고, 간식이 적었다는 이야기도 귀에 새겨야 했다.

간담회의 부모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번 자연학교가 다른 캠프와는 달리 유익했고, 어린이들이 즐거워했으며 우리가 주최하는 다음번 행사에도 참여시키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번 자연학교에 참여했던 나 자신도 괜시리 말할 수 없는 보람과 긍지를 느꼈다.

총기있고 진지했던 어린이들과 만난 인연에 감사하고, 참교육 학부모회의 이러한 행사가 계절의 행사로 그치지 않고, 작게는 어린이들의 기쁘고 즐거운 추억만들기에 일조하고 나아가서는 착실하고 확고부동한 참교육 활동의 저변확대로 이어짐을 눈으로 확인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자연학교에서 눈에 띄이지 않게 뒤에서 해충방제, 어린이 취침지도, 간식준비, 숙소측과의 흥정과 실랑이, 자료준비 등 애써주셨던 여러분께 새삼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모듬 담임선생님들은 주로 참교육 학부모회 선생님들이었고 전교조쪽 모듬 선생님들은 대부분 불참해서 담임 선생님을 찾다가 빗속에 돌아서 가는 많은 어린이들을 안타깝게 하였다. 조은경(강서구 목동)



가을 운동회~영차 영차 힘을 모으자



# 학부모 교육 공청회

## 교육개혁과 학부모



학부모는 교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바르게 인식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요구하고, 참여하고, 비판하기를 기대했다.

학교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통일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교사가 부모로부터 학생의 교육에 대해 협의, 요구를 받으면 이에 적절히 응하고 교육요구에 대해 전문적 판단을 한 후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교사가 학교교육에 대해 부모의 상담을 일체 거부하는 것은 의무 위반인 동시에 부모의 교육요구권의 침해가 된다.

교육개발원의 유현숙씨는 학교의 수동성을 지시적인 교

육행정관행과 함께 법적재량권의 부족으로 진단하고, 이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전환을 예상했다. 지시명령에 길들여져 있는 학교에서 학교 스스로가 결정하고 집행하는 자주적인 학교로, 소수가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학교에서 다수가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학교로, 공급자 위주가 아닌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학교교육으로, 폐쇄적이 아닌 열린 학교운영으로, 획일적이 아닌 융통성있는 학교운영,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학교운영을 강조하였다.

구명희(학교참여 위원회 위원장)

이정진 기자의 '자녀와의 올바른 대화법'은 쉽다.

지난 9월 16일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개혁과 학부모라는 주제로 학부모교육 공청회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개최하였다. 예상보다 많은 250여명이 참석하여 학부모들의 운영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돈희 교육개발원장은 개회사에서 교육의 공급자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친권자로서의 교육의 수요자이기도 한 학부모가 학교운영의 주체로서 참여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제1주제 교육개혁을 위해 학부모는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는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인 강인두교수(수원대)가 발표하였다.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평가를 긍정, 부정적인 면에서 엄정히 평가하면서 학부모의 과잉교육을 유발케 한 사회와 제도의 책임을 문제제기하고 전반적인 병리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의식변화보다 제도개혁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교육개혁의 실현을 위해 국민, 특히

### 아이들 글마당

## 물 보존의 중요성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어떤 생물도 살아 남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지구와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을 구별하는데 가장 독특한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물, 생명의 본질입니다.

지구의 물 중의 오직 1%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물의 수요는 끊임없이 늘어만 가고, 어느 때보다 사용할 곳이 많습니다. 농경, 수력발전, 아니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물은 우리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도꼭지를 틀 때마다 수도물이 나오고, 하루 중에 어느 때에나 샤워를 할 수 있고, 수영을하고 싶을 땐 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아직 물의 중요성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와 떨어졌을 때 그 친구의 가치를 알듯이, 우리는 물이 정말 모자랄 때 그 큰 가치를 알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집마다 수도물을 찾기 힘들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나라에는 하수처리 시설조차 없습니다. 자연히 물이 잘 순환되지 않아서 수질오염이 발생합니다.

한국, 중국,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수질 오염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급격한 경제 성장에 크게 기인합니다. 우리의 낙동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강을 둘러싼 공장들은 생태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까지 물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강의 냄새와 색깔 변동도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나 강물의 오염때문에 발생한 제일 큰 어려움은 그 강물로부터 식수를 받는 주민들이 겪었습니다. 그들은 멀리 가서 몇 시간 동안 줄서 기다려야 식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식수의 오염은 여러 면에서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강과 바다를 보호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진국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고도로 발전된 나라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미국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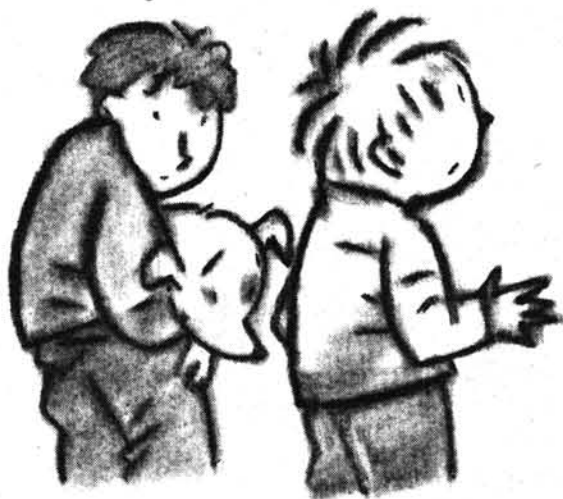
예로 보면, 미국을 구성하고 있는 50주의 지하수가 모두 오염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의 오염만이 아니라, 물을 함부로 쓰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평균적으로 미국인 한 사람은 하루에 4,940리터의 물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유럽 사람의 세배이고, 개발도상국과 비교하면 천문학적인 양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연 그 자체가 물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의 남쪽은 가뭄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부족한 강수량 때문에 농민들은 죽어 가는 농작물에 물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충분한 농작물을 재배하진 못했습니다. 이 가뭄으로부터 좋은 것 하나라도 얻었다면, 우리한테 물의 중요성을 깨닫게한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말했듯이 신선하고, 깨끗한 물이 부족해지지 않게 우리 모두는 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물 보호는 밝고, 건강한 미래의 열쇠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만 아니라, 지구 전체의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물을 아껴쓰는 것은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수도꼭지가 꼭 잠겼는지 확인하는 것 같이 간단합니다. 샤워를 짧게 하고, 수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아주 쉽게 물을 아껴쓰는 방법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물가가 마르면, 그때야 우리는 물의 가치를 알것입니다." 마른 우물의 위험이 닥치기 전에 오늘부터 물을 보존합시다!

(이 글은 화곡 고등학교 2학년 김정훈군이 영어로 쓴것을 본인이 번역한 것입니다.)

**'아이들 글마당'을 신설합니다. 자녀들의 꾸밈없는 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편지, 일기, 주장하는 글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 점박이와 운전수 아저씨



값 4,200원

.....  
손준의 창작동화집

『점박이와 운전수 아저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아동문학가 중의 한 사람인 손준의 창작동화집입니다. 개구리 점박이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운전수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점박이와 운전수 아저씨』를 비롯해 자연의 강인한 생명력을 느끼게 하는 『꽃씨와 봄』 등 모두 12편의 동화는 우리의 아이들을 자연의 품 속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 학부모, 자녀 위한 10월 행사 안내

## 알림

### 중서부지회

논리교육은 토론수업으로  
(강사:최장익)

- 일시:10월 16일 10:00~12:00
- 장소:당산동 사무실
- 문의:634-6508  
306-5003(이정남)

### 관동 강남지회

- 원동연 박사의 D.Y학습법
- 일시:10월 18일 10:00~12:00
  - 장소:방배동 청소년학회
  - 문의:634-6508  
0342) 703-8933(박이순)

### 동북부지회

- 엄마와 함께하는 어린이 그림 지도 (강사:이선경)
- 일시:10월 24일 10:00~12:00
  - 장소:기천문도장 (상계주공 6단지 전화국 옆 고려빌딩)
  - 문의:939-6857(윤지희)
- 교육문제 연구모임
- 일시:10월 5일부터  
매주 목요일(5회) 10:00
  - 장소:노원뉴스  
문화센터 700호
  - 문의:939-6857(윤지희)

### 강서남지회

- 어머니의 자녀사랑-도시락편지  
(강사:조양희)

- 일시:10월 19일 10:30
- 장소:미정 (강서남 소식지 참조)
- 문의:634-6508  
602-5960(신효종)

### 마창지회

- 일시:10월 18일 10:00
- 장소:회원동 사무실
- 문의:0551) 45-0341

### 부산지부

-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부산 시민 토론회
- 일시:10월 12일  
(교육재정과 교육환경개선)
  - 10월 19일  
(시민이 주체가 되는 교육운동)
  - 문의:051) 868-9906(조명숙)

### 전주지회 (열린자리)

- 일시:10월 12일  
(국민학교 5세입학)
- 10월 19일  
(학생체벌에 대한 토론)
- 11월 2일  
(어린이 글쓰기교실)
- 11월 9일  
(학부모 문화기행-섬진강 따라)
- 문의:0652) 231-6242

### 여수 여천지회

- 일시:10월 12일  
(함께 책읽기-써머힐)
- 10월 19일  
(아동미술속에 나타나는 아이의 심리)
- 10월 26일 (월례회)
- 문의:0662) 84-5116

### 청주지회

- 작은모임안내  
책읽기, 글쓰기모임
- 문의:0431) 62-1861(구미영)
- 생활노래, 놀이모임
- 문의:0431) 68-2118
- 어머니 모니터모임
- 문의:0431) 212-2445

### 토요문화기행

- 일시:10월 28일 3:00
- 장소:짚.풀 생활사 박물관  
중국 운남성 소수민족생활과 전시작품 슬라이드 상영도 있을 예정
- 준비물:필기도구, 간식, 물
- 문의:634-6508

- 짚.풀 생활사 박물관 회원 작품전
- 일시:10월 20일~22일
  - 장소:대학교

## 학교운영위원회의 시범학교 사례를 모집합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학부모와 학생의 권익옹호를 위해, 그리고 교육의 주민자치 향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학교참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각 지부, 지회별로 시범학교 운영위원회에 참관하여 구성 및 운영실태를 모아 토론회를 열

정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참관으로 학교운영위원회는 올바른 방향을 찾아갈 것입니다. \* 자녀의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이거나 이웃 분들이 그에 해당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2-675-9068) 또한 구성 및 운영사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고철환 교수님과 함께 떠나는 환경기행 김제 거전리 심포갯벌 탐사

일시:10월 15일 (일요일) 오전 6시 30분  
사당동 주차장(지하철 2,4호선)에서 출발  
장소:전라북도 김제군 거전리 심포갯벌  
참가인원: 40명 (선착순 마감)  
참가비: 어른 35,000  
무릎에 앉히는 어린이 10,000  
접수:전화접수 후 입금  
140-017484-02-020 중소기업은행  
(예금주:홍수영)  
문의:634-6508  
주최:참교육 학부모회 문화국

개인 승용차로 직접 가시고 식사제공은 받지 않습니다  
본인의 참가비는 10,000원 입니다(미리 연락 바랍니다)

## 교육 강좌 안내

### 교육상담원 1차 교육

일시: 11월 1일 ~ 12월 4일 매주 월, 수 오전 10시 ~ 12시  
장소: 종로성당 4층 중회의실  
참가비: 50,000  
문의: 675-9068

1. 한국사회의 현실과 교육문제 - 교육현실 전반에 대한 강의
2.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자녀지도 - 학부모의 자녀생활에 대한 이해
3. 학부모상담의 필요성과 학부모 운동 - 상담창구에 나타난 학부모의식 실태와 학부모 운동에 대한 이해
4. 상담이란? - 상담에 대한 기초적 인식 제공
5. 상담의 기초이론 - 상담의 제 이론에 대한 이해
6. 상담의 원리와 기법 - 바람직한 상담을 위한 기법의 소개
7. 학생, 학부모의 권리와 교육법 - 교육법상에 보장된 교육주체로서의 권리에 대하여
8. 바람직한 대화법 - 부모, 자녀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기술
9. 상담자의 자세 (면접상담) - 바람직한 상담을 위해 상담원이 지녀야 할 상담기술과 자세
10. 상담의 실제 - 상담사례에 대한 초보적 인식 제공

### 제3기 교육모니터 요원 양성 강좌

일시: 1995년 10월 17일 ~ 11월 21일 매주 화, 목 오전 10시 ~ 12시  
장소: 방배동 청소년 학회  
대상: 어린이의 미디어 환경에 관심있는 학부모 및 일반인  
참가비: 50,000  
문의: 634-6508, 634-4359

1. 현대인과 대중매체 - 김기태(언론학 박사, 카톨릭대 강사)
2. 한국 방송의 구조적 이해 - 엄민형(한국방송공사노동조합 정책실장)
3. 교육방송의 현황과 발전적 제언 - 임정훈(교육방송 조사연구부)
4. 케이블 TV의 현황과 교육적 활용 - 김기태
5. 방송 보도론(뉴스방송을 중심으로) - 최문순(문화방송노동조합 위원장)
6. 신문제작구조의 이해 - 손석춘(한겨레신문 기자, 언론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실장)
7. 방송제작구조의 이해 - 허진(KBS PD, 방송노보 편집국장)
8. 방송국 견학 및 노조와 간담회 - MBC 내정
9. 모니터 실습(방송모니터를 중심으로) - 백미숙(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간사)
10. 미디어환경과 청소년
11. 교육특강 - 이규환(한국교육연구소 소장)